

‘12년만 새출발’ 한다혜 “페퍼스서 시상식 가야죠”

4월 페퍼저축은행과 FA 계약 구단 4호... 3년 총액 8억7천만원 베테랑 리베로... 국대로도 활약 장소연 “수비력 강화에 최고”



장소연 감독 체제로 체질 개선에 한창인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가 이번 달부터 국내파 완전체로 훈련에 돌입했다. FA 영입 직후 국가대표팀에 소집되며 합류 하루 만에 팀을 떠나야 했던 리베로 한다혜(29) 역시 새 팀에 본격적으로 적응을 시작했다.

한다혜는 2013-2014시즌을 앞두고 드래프트 3라운드 5순위로 GS칼텍스 유니폼을 입은 뒤 줄곧 한 팀에서만 뛰어왔다. 원클럽맨으로 자리 잡은 시간만 11시즌이었다. 그런 그가 지난 4월 FA를 통해 새로운 도전을 선언하며 이제는 페퍼스의 수비를 책임지게 됐다.

한다혜는 최근 광주 페퍼스타디움(영주종합체육관)에서 전남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갖고 “처음 이적을 경험하다 보니 신입생으로 돌아간 느낌이였다”며 “설렘도 있고 걱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페퍼저축은행의 일원이라는 것이 실감이 난다”고 이적 소감을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은 네 번째 외부 수혈로 택한 한다혜에게 3년간 연봉 및 옵션 총액 8억7000만원의 조건을 안겼다. 장소연 감독은 한다혜를 영입하기 위해 직접 서울까지 올라가 영입전을 펼치기도 했다.

한다혜는 “페퍼저축은행이 저를 많이 원하는 느낌이었다. 그 부분에서 마음이 갔다”며 “정성우 부단장도 전화를 주시고



페퍼저축은행 AI 페퍼스 리베로 한다혜(왼쪽)가 최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팀 훈련에서 아웃사이드 히터 채선아와 하이퍼이브를 나누고 있다.

장소연 감독님도 꼭 한 번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 집 근처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눴는데 도전에 대해 말해주셨다”고 회상했다.

이번 이적은 초보 사령탑인 장소연 감독에게도 원클럽맨이었던 한다혜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됐다. 장소연 감독은 한다

혜의 영입을 두고 ‘수비를 보강해 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한다혜는 “장소연 감독님께서 선수 시절 도전했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저도 첫 이적을 선택하는 것이 도전일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며 “한 팀에만 있으면 현실

에 안주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이적으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다혜는 페퍼저축은행에 합류 직후 국가대표팀에 합류하기도 했다. 김연경(현대건설)과 문정원(한국도로공사)까지 리베로가 즐부상을 입으면서 한다혜와 김재

원(IBK기업은행)이 2024 FIVB 여자발리볼네이션스리그(VNL)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페퍼저축은행에 합류하고 첫 운동을 하고 난 뒤에 (강)소취랑 (김)재원 이한테 전화로 소식을 듣고 알았다”며 “훈련할 때 일부러 (박)정아 언니나 (박)사랑이랑 연습을 같이 하면서 미리 맞춰보는 얘기도 했다. 시간이 워낙 짧았다 보니까 아직은 잘 안 맞는데 앞으로 잘 맞춰보겠다”고 언급했다.

한다혜가 주전 리베로로 활약한 국가대표팀은 태국에 세트 스코어 3-1 승리를 거두며 VNL 30연패에서 탈출하는 기쁨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2승 10패(승점 6)로 15위지만 탈꼴찌라는 성과를 거뒀다.

그는 “2021년 이후로 첫 승이 나왔는데 제가 함께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좋은 시간이었지만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다”며 “팀에 복귀한지 얼마 안 됐지만 최선을 다해 훈련하고 있다. 선수들과 소통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다혜가 페퍼저축은행에서 새로운 배구 인생을 설계하며 세운 목표는 ‘탈꼴찌’와 ‘시상식’이다. 팀은 세 시즌 연속 최하위에서 벗어나 더 높은 순위로 올라가고, 개인적으로는 베스트 7을 한 번 수상해 보겠다는 다짐이다.

그는 “팀 분위기가 정말 좋다. 훈련장 내외에서 모두 좋는데 시즌까지 끌고 가야 한다”며 “팀의 순위를 한 번 바꿔보고 싶다. 개인적으로는 베스트 7을 한 번 받아보고 싶은데 기복을 줄여서 시즌 초반부터 막판까지 꾸준한 활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전남 선수단, 전국장사씨름대회 은 1·동 3

전남 씨름이 제10회 춘천소양강배전국장사씨름대회에서 고등부와 대학부까지 고른 입상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며 오는 10월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전남씨름협회는 지난달 28일 강원 춘천 한림레크리에이션센터에서 개막한 이번 대회에서 대학부 은메달 1개, 고등부 동메달 3개 등 총 4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장래환(세한대 3)은 은메달을 차지하며 메달 사냥의 물꼬를 텄다. 장래환은 대학부 용장급 결승에서 김재원(경기대)에게 0-2로 고배를 마시며 은메달에 만족해야 했다.

장래환은 준결승에서 반승훈(목원대)

에게 첫 판을 내주며 위기에 몰렸으나 이후 발다리 되치기와 안다리 되치기로 내리 두 판을 가져오며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결승에 오른 바 있다.

권민성과 염태산(이상 여수공고 3), 박승현(여수공고 2) 등 3인방은 나란히 동메달을 수확하며 전남 씨름의 선전에 힘을 보탤다. 권민성은 고등부 용장급 준결승에서 오현섭(부평고)에게 첫 판을 따낸 뒤 내리 두 판을 내주며 1-2로 역전패했다.

염태산은 고등부 용장급 준결승에서 이건희(용인고)에게 0-2로 고배를 마셨고, 박승현은 고등부 장사급 준결승에서 이혁준(부평고)에게 1-2 역전패하며 동메달을 수확했다.

한규빈 기자

동강대 야구, 전국대학야구선수권 토너먼트 진출

조별리그 2승 1패... A조 2위 6일 중앙대와 조 1위 다툼

동강대 야구가 ‘제 79회 전국대학야구선수권’ 토너먼트에 진출하며 대회 역대 최고 성적인 우승에 한 발짝 더 다가갔다.

홍현우 감독이 이끄는 동강대 야구부는 오는 6일 충북 보은스포츠파크 A구장에서 중앙대와 A조 마지막 경기를 갖는다. 동강대는 조별리그 2승 1패, 최소 조 2위

를 확보하며 각 조 2개 팀에 주어지는 토너먼트 진출을 확정했고 2021년 대회 준우승 이후 역대 최고 성적에 도전한다.

동강대는 지난달 25일 ‘대학야구 전통의 강호’ 건국대를 제압한 뒤 동아대에 아쉽게 패했지만 수성대와 3차전에서 10-5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남은 경기 결과에 관계없이 최소 조 2위를 확보한 동강대는 중앙대(3승)와 마지막 경기에서 조 1위를 놓고 경쟁한다.

최동환 기자

전남드래곤즈, K리그2 20라운드 ‘베스트 팀·매치’ 짝꿍이

경남 원정서 4-2 승... 2위 수성 하남·최원철·임찬울 베스트 11



최근 9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며 1부리그 승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전남드래곤즈가 지난 라운드 베스트 팀과 베스트 매치를 짝꿍이했다. 경남FC를 상대로 득점포를 가동한 하남과 최원철, 임찬울은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리며 경 gesta를 맞았다.

전남은 3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하나은행 K리그2 20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됐다. 전남은 지난 1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맞대결에서 4-2 역전승을 거뒀다.

전남은 전반 10분 바차나 아라불리에게 선제 실점을 허용했으나 전반 28분 최원철을 시작으로 전반 39분 임찬울, 전반 추가시간 1분 하남까지 곧바로 세 골을 몰아치며 승부를 뒤집었다. 이어 후반 26분 아라불리에게 만회골을 내줬지만 후반 33분 발디비아가 쐐기골을 터트리며 완승을 장식했다. 화끈한 공격전을 주고받은 만큼 베스트 매치 역시 전남의 몫이었다. 추가시간 포함 103분의 승부에 양 팀을 통틀어 여섯 골이 나왔고 슈팅은 24개, 유효슈팅은 10개에 달했다.

또 득점의 주인공인 하남은 공격수 부



전남드래곤즈가 3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발표한 하나은행 K리그2 20라운드 베스트 팀과 베스트 매치에 선정됐다. 전남 선수단이 지난 1일 경남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와 맞대결에서 4-2 역전승을 거둔 후 기뻐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문, 최원철과 임찬울은 미드필더 부문 등 베스트 11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경기 풀타임을 소화한 하남은 전반 추가시간 1분 임찬울의 프리킥을 머리로 방향만 바꿔놓으며 팀의 세 번째 득점을 터트렸고, M.O.M.(Man Of the Match·수훈선수)에도 선정됐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K3리그 춘천시민축구단에서 영입한 최원철은 전반 26분 유진홍과 교체 투입된 후 2분 만에 강력한 동점 중거리슛으로 첫 골을 신고했다. 최원철은 임찬울의 코너킥을 수비가 머리로 걷어내자 곧장 슈팅으로 연결하는 과감함을 선보였다.

임찬울은 이날 경기에서 선발 출장해 63분 동안 1득점과 1도움을 올리며 해결사

역할을 했다. 전반 39분에는 하남의 중거리슛이 고동민 골키퍼에게 막히자 침착하게 밀어 넣으며 역전을 이끌었고, 전반 추가시간 1분에는 프리킥으로 최원철의 득점을 도왔다. 하남의 쐐기골 역시 임찬울의 코너킥이 시발점이었다.

더불어 연패 탈출의 선봉에 선 광주FC의 가브리엘 티그랑은 하나은행 K리그 1 2024 20라운드 베스트 11 미드필더 부문에 선정됐다. 가브리엘은 지난달 30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제주와 맞대결에서 1-1로 맞선 후반 44분 김진호의 크로스가 빅톨의 머리에 맞지 않고 뒤로 흐르자 발끝으로 밀어 넣으며 극적인 결승골을 터트리며 2-1 승리를 장식했다.

한규빈 기자